

'SK이터닉스 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둘로 갈라진 민심

등록 2026.02.13 16:49:21 | 수정 2026.02.13 18:54:24



[포항=뉴스시스] 송종욱 기자 = SK이터닉스(주)가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인근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 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찬성·반대 측 주민이 내건 현수막. 2026. 02.13. sjw@newsis.com

[포항=뉴스시스]송종욱 기자 = 대기업이 민심을 외면한 채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에 주민들이 찬반 두 갈래로 나눠 무분별한 고발로 이어지면서 시골 마을의 민심마저 흉흉하다.

SK이터닉스는 2016년 죽장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해 전기 위원회의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주민 반대로 포항시가 사업을 반려했다.

이 회사는 그간 허가 기간을 연장해 최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북구 죽장면 가사리 인근 산림 7만9606㎡에 풍력발전기 11호기 건설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주민 피해를 고려해 죽장면 이장협의회·개발자문·죽장 풍력반대대책위원회가 나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전달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찬반으로 대립하면서 이장 선출 문제와 각종 위반 건축물,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팽팽한 찬반 대립으로 이 마을은 2년간 이장을 선출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연말 시가 이장을 위촉했다.

특히 이장이 주민들과 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자 찬성 측 주민들이 위반 건축물과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등을 고발한 것.



[포항=뉴스시스] 송종욱 기자 = 13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죽장면 가사리 주민과 죽장면 풍력반대대책위·포항시 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SK이터닉스의 죽장 풍력발전 사업 찬성 주민들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과 고발로 농촌 공동체가 사라졌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13. sjw@newsis.com

이에 따라 13일 죽장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가사리 주민과 죽장면풍력반대대책위·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SK이터닉스의 죽장 풍력발전 사업 찬성 주민들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과 고발로 농촌 공동체가 사라졌다"며 "찬성 측 주민들이 각종 고발로 반대 측 주민들을 압박해 찬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산림의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주민 갈등을 극대화하는 재생에너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이터닉스뿐만 아니라 SK그룹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형평성과 정당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기업의 ESG와 사회적 가치가 공동체 파괴를 외면하고 묵인하는 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sj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